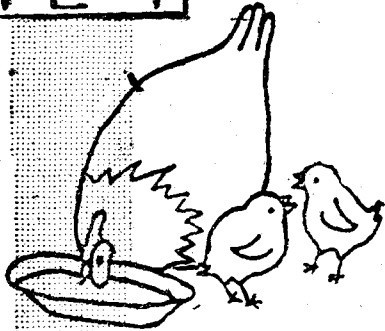


# 이달의



## 사양관리

지난 겨울은 평년에 비해 별다른 강추위가 없이 지난 관계로 이달부터는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역대책의 철저한 강화와 위생관념의 음미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겠다. 아울러 기본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무계획한 초생추의

과잉생산 배제로서 적정수준의 배부가 요망되며 사료공장의 합리적인 배합계획, 종계장및 부화장의 시설과 체질개선이 요망된다.

### 1. 육추

육추기간 (0~8주)은 전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성체의 유전적인 우수한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도록 애정과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될 것이다.

지면에 누차 소개된 방역대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각종 영양공급, 시설개선, 판매로의 확보 그리고 관리면의 밀사, 관리자의 태만, 환기, 온도, 습도등을 검토, 계획한 후에 육추를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초생추 구입에 상당한 경쟁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다고 경제성이 희박한 품종을 구입하므로써 손실을 보아서 는 안될 것이다. 부로일러 계사

의 방한시설의 철거는 상태여하에 따라 조절해 나가며 반드시 올인 올라웃 방법을 택해야겠다. 혹자는 자금면 또는 시설면의 이유로 동일 육추사에 칸막이를 하고 일령이 다른 초생추를 윤번제로 계속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 이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탄가스나 도난(쥐, 고양이, 사람)방지에 주력하고 육추사내에는 숙직을 두어 소홀하기쉬운 야간관리를 신중히 하도록해야 한다.

### 2. 산란계

산란의 피크시기를 맞았다고 방심하기에 앞서 각종 스트레스 방지에 노력하여야 겠다. 즉 급격한 환경변화의 해소(일교차 방지, 강한 자외선 조사 방지) 산란피로기에 대한 대책, 점등관리의 계속, 성성숙 일령이 축진된 대추의 관리, 사료배합율 재조정, 겨울철과 동일한 환기관념, 환경위생의 철저, 계사 주변에 잔디나 나무심기, 청결정돈으로서 각종 미생물 번식 제거 등 그외에도 많은 일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성숙축진으로 일어나는 초산시에는 소란, 기형란, 경란등이 산란되므로 산란계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니 관리의 개선이나 사료조절로서 억제시켜야 될 것이며 사료배합율 재조정시 정채(러시안컴프리등)를 급여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유독성의 화학제가 묻지 않은 섬유질이 적고 꽃이

4월

정 보 남  
 <한국 가금협회검정소>

되지않는 유연하고 기호성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되 오염지<연못주위, 계분보관소, 쓰레기장, 파수원등>의 불결한 풀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환기관계는 거울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창문만 개방했다고 완전환기가 되는것은 아니다.

### 3. 종 계

품종 고유의 사양시험 데이터를 참조하여 철저한방역, 종합 영양제공급, 효과적인 점등법,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관리를 해야하며 관리상의 미비<시설부족, 난폭한 사양등>점의 해결에 신속처리가 요망된다. 종계 1수는 100수 내외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자극 즉 수정용의 교체시 철망을 넘어서 날아들어 온 다른계사의 닭으로 기억에 혼란과 경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줄런지도 모른다. 특히 계체간의 능력의 우열로서 심신의 활동을 야기시켜 폐계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들면 ㉞는 ㉝보다 모든 능력면에 열등한 위치에 있고 ㉞는 ㉝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을때에 ㉞는 ㉝와 ㉞에게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 기능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스트레스는 사소하기 때문에 무시되는 수가 많은데 만약 이닭에 기생충이 존재할때면 영양 결핍증이 발생되고 여기에 접종을 했다면 1+1=2가 아닌 1+1=4의 결과가 초래되어 이닭은 결국 폐계가 되

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소한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제거시키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산란종계중에는 경쾌하게 높이 날르는 닭이 있는데 <야외 사육시 철망위를 넘어 날아가 버림> 이때는 날개의 한쪽을 약간 잘라 몸의 균형을 잃게하면 시정될 수 있다고 본다.

### 4. 질병

미생물 번식과 총란부화의 적기를 맞아 각종 질병이 만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환경의 급변으로 야기되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 적지 않을 것이다.

#### 가. 카니발리즘

각종 영양분의 결핍시, 파란(破卵), 밀사, 출혈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종류를 들어보면 식혈<食血>, 식란<食卵>, 식우<食羽> 항문조기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실내의 광도를 제한하고 적기에 디비킹을 실시할 것과 조기발견으로 개별적치료가 요구되겠다.

#### 나. 각약증

어떤 질병의 본증이나 영양장애, 기계적인 자극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기계적인 자극 해소, 충분한 영양공급(Ca, V-B<sub>1</sub>) 영역의 철저로서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 다. 기생충

정기적인 구충을 실시하지 못

했거나 잠재적인 총란(虫卵)의 체내부화로서 건강한 계체의 건강을 해치는 수가 많다. 앞으로는 청초를 급여시킬 기회가 많으므로 총란오염지의 청초는 되도록 급여치 말도록 노력하여야겠다.

### 5. 인력관리

#### 가. 체질의 개선

유효적절한 장소에 인력관리가 잘못 선택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경영자는 당사자들의 능력에 맞는 위치로 로테이션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체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데 있기때문이다. 선택된 당사자에게는 부담없이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킬 수 있게 조건을 부여시킨다. 혹자는 이중체제의 감시감독을 표면화 시키는데 이는 신용과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겠다.

#### 나. 신용과 믿음

간혹 경영자는 관리자들을 믿지 못한 나머지 친지를 통하여 감시감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경영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표면화 보다는 당사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결백한 자라도 자신의 일거일동이 감시감독을 받는다고 느낄때는 행동의 제한을 받아 과감한 경영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